

## 41과 룻의 믿음

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 
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 
마음먹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났습니다.  
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 
“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.”  
“저는 어머니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어요.”  
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 
남았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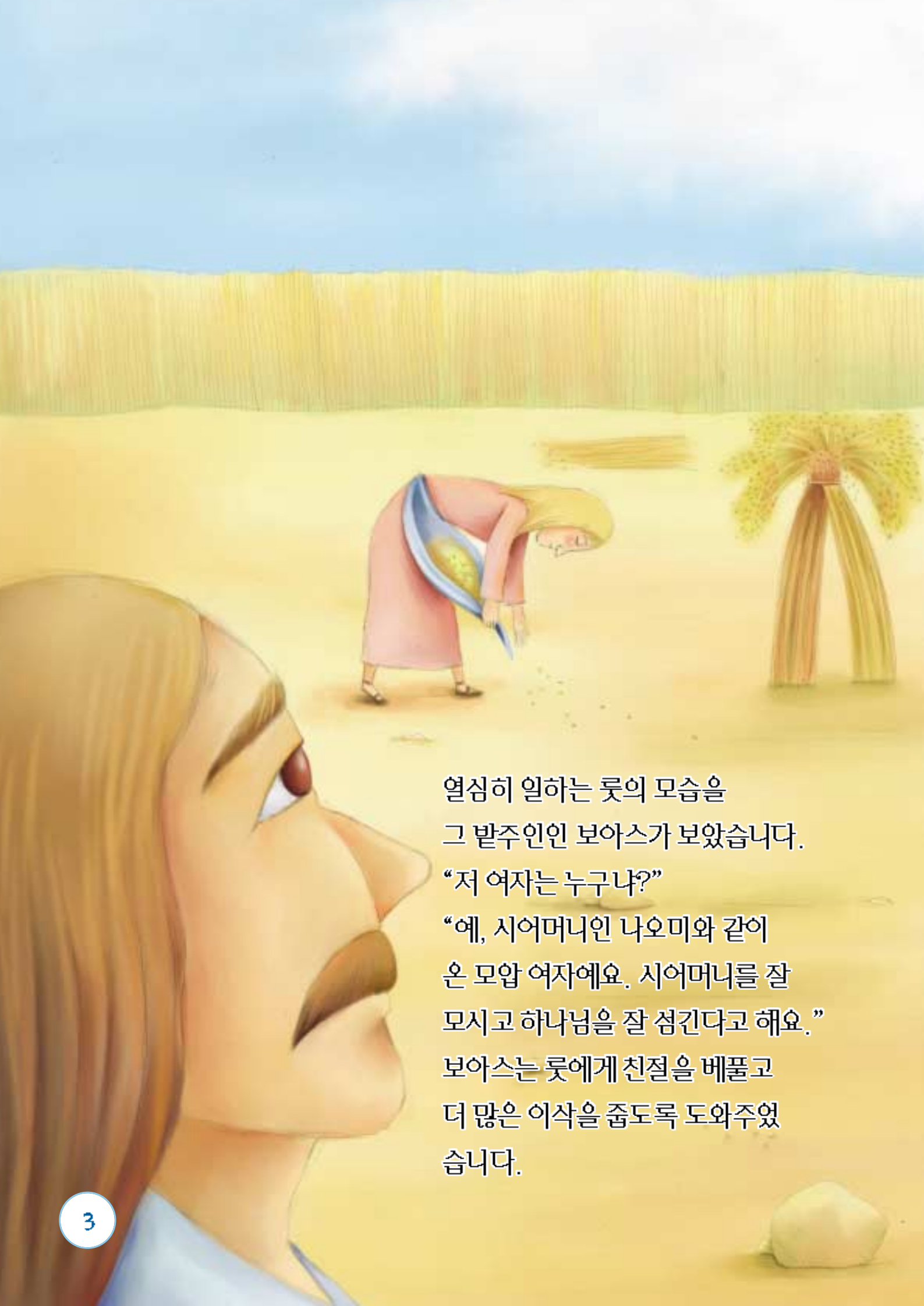
두 사람은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.

나오미와 룯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.

“어머니,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 
주워 오겠어요.”

룯은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 
열심히 주워 왔습니다.





열심히 일하는 룯의 모습을  
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보았습니다.

“저 여자는 누구냐?”

“예,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 
온 모압 여자예요. 시어머니를 잘  
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.”

보아스는 룯에게 친절을 베풀고  
더 많은 이삭을 줌도록 도와주었  
습니다.

“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 
좋은 상을 주실 것이요.” 보아스는 롯과 결혼했습니다.  
두 사람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.  
오벳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.



# 교제해요

1. 룯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나요? (     )



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



② 시어머니가 가진 돈이 탐나서



③ 하나님을 섬기려고

2. 룯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중에 룯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? (     )



① 다윗



② 보아스



③ 사울

3. 다음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.

엄마가 현금을 하라고 500원을 주시고, 또 용돈으로 500원을 주셨어요. 그런데 넘겨져서 500원을 하수구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. 남은 500원을 현금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용돈으로 쓸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.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?

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룯처럼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.

# 암송

암송을 따라 써요.

어머니의 백성이  
나의 백성이 되고  
어머니의 하나님이  
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 
(룻기 1장 16절)

## 기도하는 어린이



하나님!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기가  
너무 힘들어요. 제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 
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갈 수 있도  
록 도와주세요.

나의  
기도

---

---



## 색칠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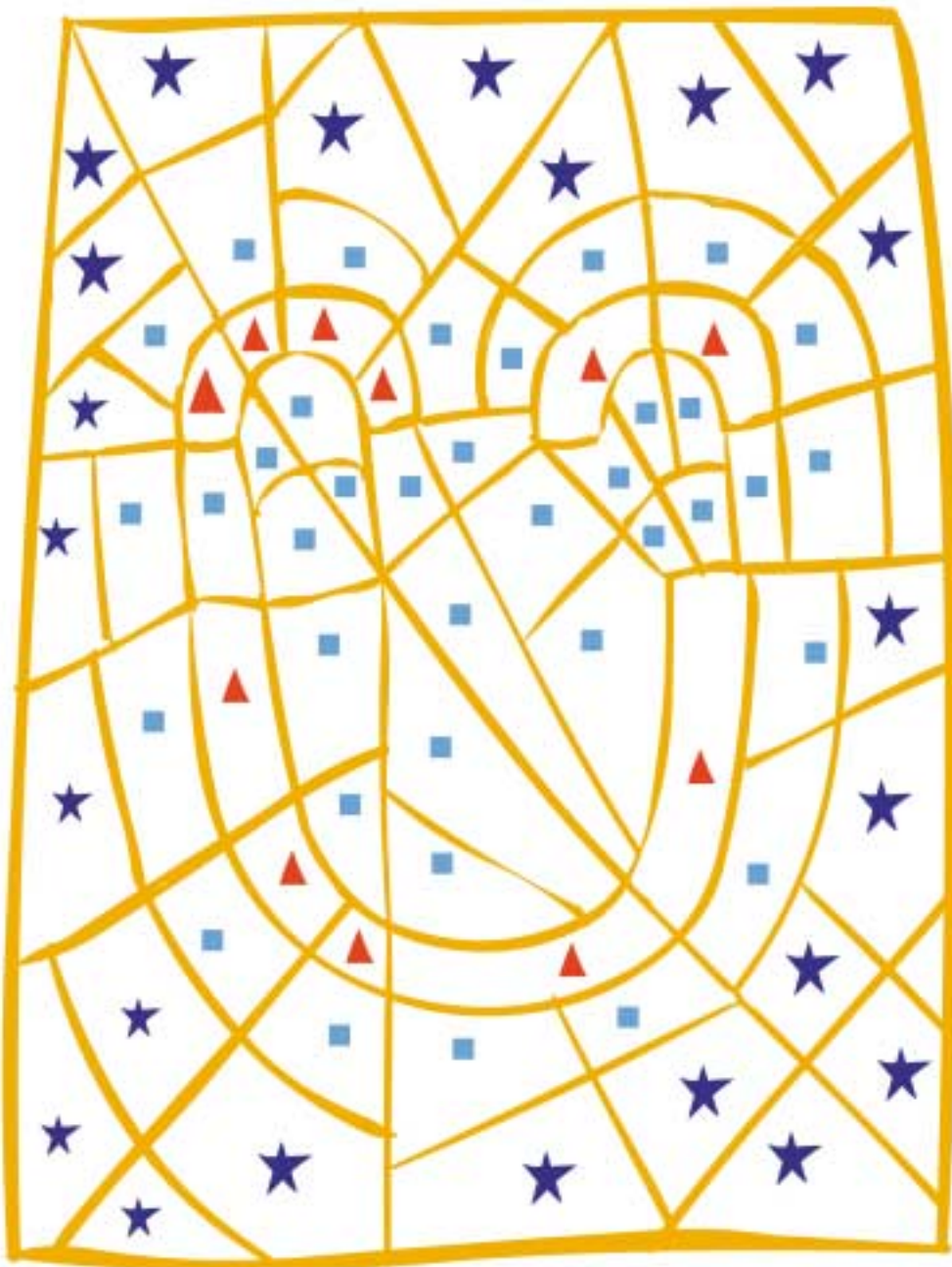
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에서 선택하세요.  
내가 고른 모양이 있는 칸을 모두 색칠해요.

보기

□ 컴퓨터 게임을 신나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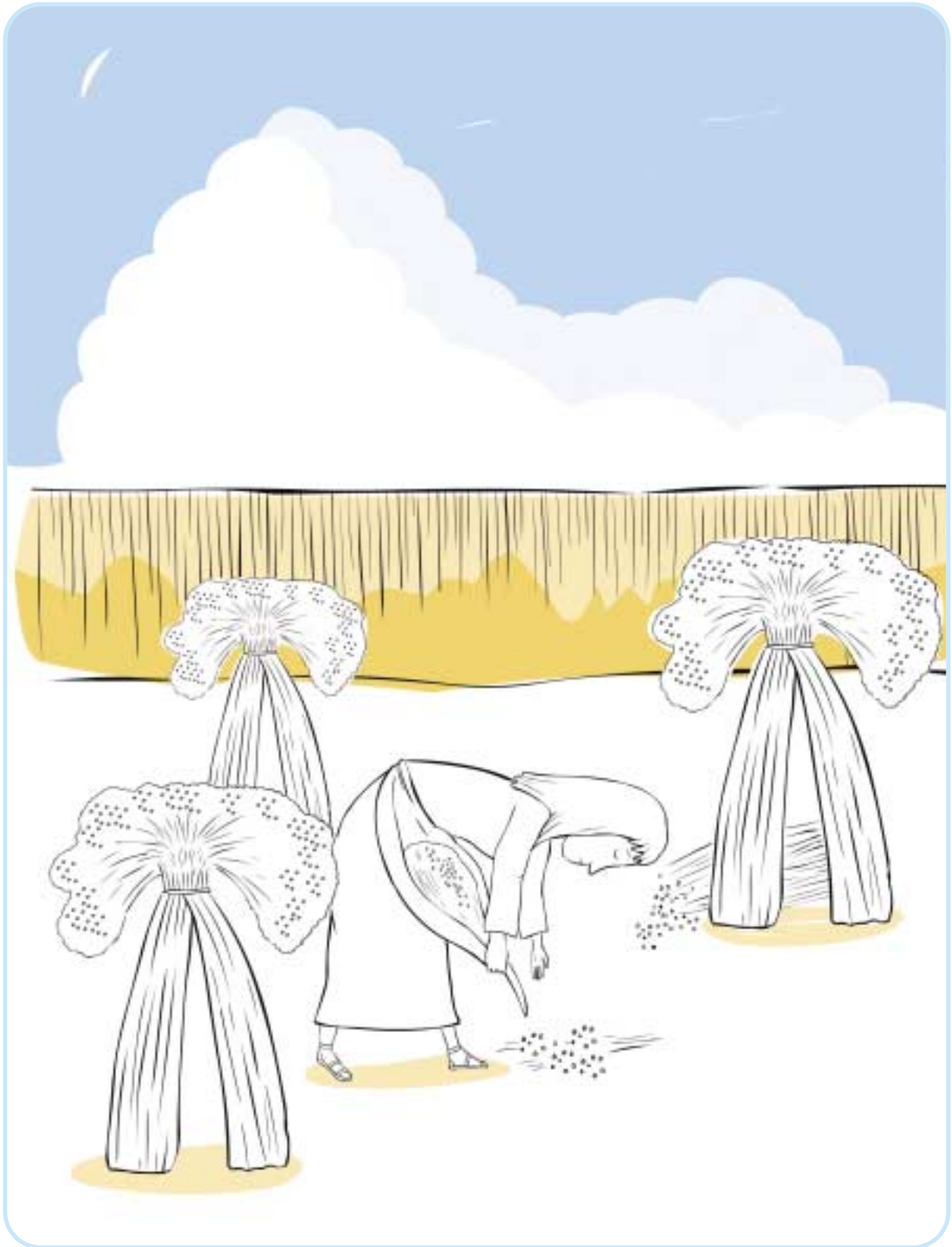
☆ TV를 밤늦게까지 본다.

△ 머리카락을 열심히 한다.



# 색칠하기

룻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. 예쁘게 색칠해요.



선생님께

부모님께